황교안 "불교 관련 법 개선 협력"

조계종 예방, 국무총리 시절 이후 두 번째



꾸준히 종교편향 논란이 있어온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했다. 황 대표는 과거 마곡사와 깊은 인연이 있다며 불교계 현안으로 대두된 각종 법령 개선에 협력할 의사를 표명했다.

원행 스님은 3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황교안 대표의 예방을 받았다.〈사진〉 황 대표의 조계종 예방은 2015년 국무총리 시절 이후 2번째다. 이 자리서 황 대표는 "20대 초반 고시 공부를 마곡사에서 한 인연이 있다. 종교는 기독교지만 사찰서 공부해 오늘에 이르는 한 걸음이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자연공원법과 지방세법 시행령 등 불교 관련 법령을 잘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원행 스님은 "공주 마곡사는 유서 깊은 사찰이다. 독립운동가 김구 주석도 잠시 머무르며 출가 수도했던 곳"이라며 "광복 후 다시 마곡사를 찾아 심은 향나무 한 그루가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황 대표가 호국불교에 대해 묻자 원행 스님은 "표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불교는 국토와 민족을 부처님같이 섬기기 때문에 이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 지키고자 했던 것이다. 위정자 입장에서는 호국불교라고 표현할 수 있고 불교적으로는 동체대비 사상을 구현하는 자유와 평화를 향해 대항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답했다.

이후 비공개로 전환된 뒤 스님과 황 대표 등은 문화 창달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 기획실장 오심 스님에 따르면 종단은 자유한국당에 환경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불교문화재를 점이 아닌 면 단위로 인식해야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지원 기자

불교 내 역할 모색한 전국비구니회

경주서 제11대 운영위원회 워크숍 개최



전국 조계종 비구니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불교 내 역할을 고찰하고 발전을 위한 대안을 모색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육문 · 이하 비구니회)는 3월 11~12일 경주 황룡원서 '전국비구니회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운영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했다.〈사진〉 워크숍은 전국비구니회장 육문 스님, 운영위원장 혜원 스님,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을 비롯해 전국 지회장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강연과 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은 5조로 나눠 비구니회 발전을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고 종합토론에서 발표해 의견을 모았다. 토론에서 모은 의견은 전국비구니회 집행부에 전달, 실천을 위한 구체적 방향을 검토한다.

토론 내용은 △출가자 감소 해결방안 △비구니 스님의 독거 노후 복지 △전국비구니회 운영 체제 개선 방안 △불교 내 비구니회 역할 △수익모델 개발 △재정확보 방안 등이다.

비구니회는 "출가자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비구니 스님들의 복지 문제는 시급한 현안"이라며 "출가자 관리와 전문 복지 시스템을 위한 전국비구니회 체제가 구축돼야 한다. 현황 조사와 전문인력 채용, 노비구니 스님 양로시설 보완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 거사회 및 전문인 대상 포교 프로그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포교를 위한 수익 활동도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연은 김봉석 변호사가 '종법상 비구니의 지위와 역할'을, 김중태 IT문화원장이 'SNS와 인스타로 소통하기'를 주제로 진행했다.

한편, 회장 육문 스님과 운영위원장 혜원 스님의 인사말도 이어졌다.

회장 육문 스님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의논하고 중지를 모아 앞으로 비구니 대중 스님들의 발전과 포교를 위해 더욱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주=하성미 기자

태고종 총무원장 첫 불신임

중앙종회 제136회 정기회서 찬성39 · 반대2 가결



3월 14일 서울 사간동 태고종 총무원사 앞 이면도로에서 속개한 중앙종회 제136회 정기회서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에 대한 불신임 동의안이 가결됐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이 불교 4대 명절 중 하나인 출가재일에 불신임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각종 부정행위 의혹이 일면서 편백운 스님은 임기 반환점도 돌지 못한 채 직위를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편백운 스님은 중앙종회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견해를 지속적으로 피력해 태고종 내홍은 계속될 전망이다.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도광)는 3월 14일 서울 태고종 총무원 앞 이면도로에서 제136회 정기회를 속개, 긴급 발의된 총무원장 불신임 동의안을 무기명 비밀투표에 부쳐 가결했다. 재적의원 53명 중 41명이 참여한 투표결과 찬성 39표, 반대 2표로 의결정족수인 36표를 넘겼다.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에 대한 불신임 사유는 6가지로 제기됐다. 중앙종회는 △총체적 회계부정 △공문서 위조 △권한 없는 행위 △감사 거부 △종도 음해 △사생활 문제를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무엇보다 현재 검찰조사가 진행중인 회계 부정 문제와 선출직 지방종무원을 총무원장 직권으로 직무정지 하는 등 독단적인 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총무원장 불신임 동의안을 긴급발의한 前특별감사위원장 법담 스님은 "편백운 스님은 행정부를 대표하는 수장으로서 종회의결로 시행된 특별감사를 거부하고, 원로의장 스님을 비롯한 종도들을 음해하며 물의를 일으켰다"면서 "앞서 제기한 불신임 사유에 대한 모든 증거자료를 갖고 있다. 따라서 총무원장을 불신임할 것을 동의한다"고 제안 설명했다.

중앙종회는 투표결과에 따라 편백운 스님의 총무원장 권한이 부원장인 성오 스님에게 이전됐음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편백운 스님은 2017년 7월 총무원장으로 당선된 후 2년이 채 되지 않아 태고종 역사상 첫 총무원장 불신임이라는 불명예를 남겼다. 불신임의 남은 절차는 태고종 원로회의 인준이다. 중앙종회는 이날 결과를 원로회의에 즉각 전달, 빠른 시일 내 원로회의를 소집해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아울러 중앙종회는 총무원 부장단인 총무부장 정선 스님, 재무부장 도진 스님, 교무부장 법도 스님, 규정부장 혜암 스님, 사회부장 청담 스님에 대한 해임 결의안을 투표에 부쳐 결의했다.

회계부정 · 공문서 위조 등
5가지 불신임 사유 제기돼
원로회의 불신임 인준 남아
편백운 스님 "결의 수용 못해"

이날 중앙종회에는 원로의장 덕화 스님과 호법원장 지현 스님, 각 지방종무원장 등이 참관해 눈길을 끌었다. 총무원장 불신임 동의안이 가결된 뒤 원로의장 덕화 스님은 "중앙종회 결과를 통해 종도들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원로회의를 소집해 불신임안 인준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총무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부원장 성오 스님은 "원로회의 인준 등 절차가 남아있지만 중앙종회를 비롯해 여러 기구와 소통하며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중앙종회의 불신임 결의에 대한 입장을 듣고자 편백운 스님에게 전화를 시도하고 문자를 남겼으나 답변을 들을 순 없었다. 하지만 편백운 스님은 중앙종회 결의 직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종무행정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편백운 스님은 입장문에서 "집행부인 총무원과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종회를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총무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부장을 해임하고, 성오 스님을 총무원장 직무대행으로 선택한 결의를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또한 "도광 종회의장 등이 이미 총무원장을 배임 및 횡령혐의로 사회법에 제소했으므로 그 결과를 따른다는 방침 외에는 대안이 없음을 밝히며 종무행정을 수행해나갈 것을 재천명한다"고 전했다.

韓 종교계, 룸비니 의료 지원 추진한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인도 · 네팔 성지순례서



국내 7대 종단 대표들이 쿠시나가르 열반상 앞에서 기도를 올리는 모습.

한국 종교계가 네팔 룸비니 지역에 의료시설 건립이나 의료인 양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불교와 천주교 등 한국 7대 종단 지도자들은 3월 8일 부처님 탄생지인 룸비니를 방문, 현지 관계자와 의료지원 방안을 협의했다. 네팔 문화관광부 산하 룸비니개발신탁(Lumbini Development Trust) 메테야 사키야푸타(Metteyya Sakyaputta) 부위원장은 룸비니 지역에 160만 명 정도의 주민이 살고 있지만 의료시설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7대 종단 지도자들은 병원 등 의료시설 건립을 지원하거나 현지 인력을 선발해 한국에서 의료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한국 종교계가 협력해 룸비니에 의료시설을 짓고 의료진을 파견해 운영하면서, 한편으로는 현지 의료인력 양성도 지원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원불교 오도철 교정원장은 "원광대 의료진이 1년에 한두 차례씩 이 지역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해왔다"면서 "각 종단마다 의과대학이 있으니 현지 인력을 선발해 한국에서 의료교육을 받고 돌아가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조언했다.

천주교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는 "본격적인 의료인 양성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만큼, 우선 현지 의료인을 한국으로 초청해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을 통해 의료시설 건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말했다.

7대 종단 지도자들은 네팔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실무진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과 협력방안을 검토하고, 문화체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 관련부처와도 협의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 종교 지도자의 룸비니 방문은 (사)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가 주관한 '2019 대한민국 종교지도자 이웃종교체험 성지순례' 행사의 하나로 이뤄졌다. 이 순례는 3월 5~13일, 부처님의 탄생과 성도, 설법과 열반 유적지 등 인도와 네팔의 불교 4대 성지를 순례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순례에는 종지협 공동대표의장인 김희중 대주교(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와 공동대표인 원행 스님(조계종 총무원장), 오도철 교정원장(원불교), 이정희 교령(천도교)을 비롯해 문체부 이우성 종무실장, 종지협 운영위원 등 19명이 참가했다.

네팔=공동취재단

www.boryeon.com

연등설치 전문기업

보련기획

조립식 도량장엄등 설치

추가적인 시공(공사) 불필요

전문인력, 장비없이 조립.해체 가능

기둥을 최소화하여 공간활용 극대화

다목적 활용으로 경제적









보련기획 BORYEON

010-5381-9355 /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